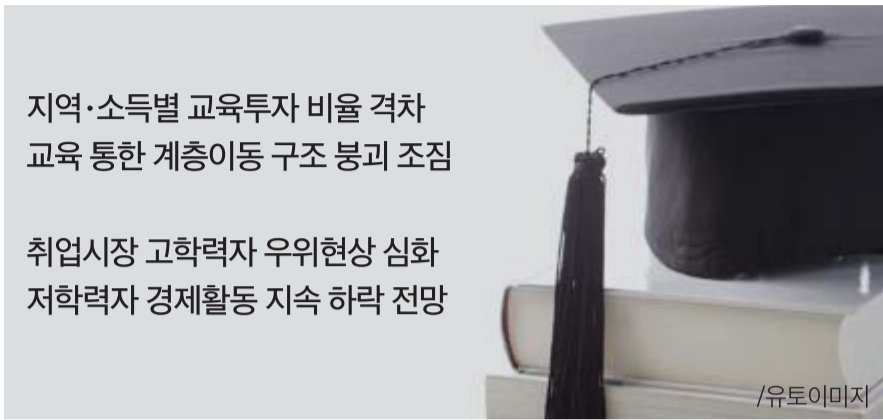


계층 간 입시 이해도 상이... 상위 일수록 고학력 취득 유리

취업 시장에서 '고학력자'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계층간 격차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소득 분위별 교육 투자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교육 양극화도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보고서를 보면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구조 전망에서 고학력화 심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학력별 생산가능인구의 구조를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 인구는 61.2%에서 56.9%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38.8%에서 43.1%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



지역·소득별 교육투자 비율 격차
교육 통한 계층이동 구조 붕괴 조짐

취업시장 고학력자 우위현상 심화
저학력자 경제활동 지속 하락 전망

/유도이미지

동참가율 역시 고학력자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온라인 부문 확대로 2020년 77.0%에서 2030년에는 79.7%로 높아지지만,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53.4%에서 2030년에 49.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은 지금까지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불려왔지만 현재는 그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고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입시 이

해도가 높아지면서 고학력 취득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학력자 선호 현상은 결국 입시로 직결된다.

2019년 공개된 '한국사회학' 제53집 제3호의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 따르면 계층 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독해력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입시제도 담론이 상층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하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주목된다. 논문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가 타 지방에 비해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1.38(exp=0.319)배 더 높으며, 이는 입시제도 이해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온 바 있다.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

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순으로 집계되면서 유명 학군지의 실재를 방증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유지됐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올해 서울대 정시 결과를 보면 합격생 중 서울시 거주자가 48.5%로 지난해 44.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정시 지역별 합격자 분포가 공개된 2014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 고른 인재 선발에 노력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경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으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 간 교육 환경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출산을 향상 위해 ‘결혼·육아 체험센터’ 필요”

‘상상대로 서울’ 저출산 타개책 난자 동결 지원금 등 의견 제시

서울시민들이 출산을 제고 방안으로 난자 동결 지원금 지급, 어린이 실내놀이터로 공공기관 시설 개방, 결혼·육아 체험센터 설치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타개책이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국민민주주의의 서울)에 제안됐다.

미혼 여성인 신모 씨는 “출산이 늦어지는 현시점에서는 여성의 가임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자 동결 지원금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일 듯하다”며 “난자 동결 후 시험관 시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자동결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영하 210도의 액체질소로 급랭

한 뒤 난자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난자를 해동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춰 저출산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올해 난자동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 도쿄도는 연간 200~300명의 난자동결 희망자에게 1인당 최대 30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동결 시술이 비급여라 미혼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다.

신 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출산에 가로막혀서 결혼까지 무산되는 경우를 봐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아파트 고밀화 ▲코로나 19 이후 동네 아이들과의 교류 저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물가 폭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실내놀이터 이용료 고가 책정으로 부모들의 경제력 약화를 이유로 들며 주말과 공휴

일에 공공기관 시설을 유아·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개방해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설 키즈카페 대비 최소한의 육아 놀이시설 확보로 민간사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윈스트라이아웃 제도를 신설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사고를 유발시킨 가족들은 실내 놀이터 이용을 최소 3개월간 제한해달라는 아이디어도 덧붙였다.

이모 씨는 결혼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개인·사회·국가가 함께하는 시·도별 ‘결혼·육아 체험센터(드로잉베이비)’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 씨는 “결혼계획 작성, 아동소품 창작, 가정친화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주제로 센터의 공간을 나눠 운영하고 우수작품을 상용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교육부, 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통 학교안심글꼴 13서체 개발... 현장 보급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분쟁 고충을 덜고자 학교안심글꼴을 개발해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저작권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신규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 등을 해결하고자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과 글꼴 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현장의안

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안심글꼴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2000명 이상 청년구직자, 기업 매칭”

서울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이하 창구)에서 2000명 이상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 문을 연 일자리 지원 시설이다.

시는 연말까지 만 15세~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모습.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용인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이는 지난해 예산인 455억원보다 7.18% 증가한 규모로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440억원)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47억6500만원)으로 유지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경기)=임창교 기자 lckda@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7 | 해질 / 18:30

3월 6일 (월)
음력 : 2월 15일

수도권 날씨
3 ~ 16°C

운풍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3/15
- 동두천 -2/16
- 가평 -3/17
- 양평 -2/17
- 용인 3/16
- 수원 3/16
- 평택 -2/17
- 파주 -4/14
- 백령도 4/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향한 러시아 공세에 방어 중
▲EU, 전쟁 일으킨 러시아 겨냥 국제기소센터 신설 합의 /사진 뉴시스



▲중국, 올해 국방비 7.2% 늘어난 약 300조 편성...경제 성장 5% 목표
▲미국 작가 윌리엄슨, 민주당서 2024 대선 출마 선언...바이든과 경쟁 /사진 뉴시스

▲미국 합참의장, 시리아 방문에 IS 소탕전 현황 확인
▲호주, 미국과 함께 남미서 마약 조직체포...코카인 8800억여치 압수